

#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

##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에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수십억의 인간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뿐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들을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모든 부분도, 실제적인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사건, 피조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신다.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그는 잊어버리시거나 틀리거나 변하지도 않으시고, 못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한 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 측량할 수 없다고 찬양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세오스(Theos)라 한다. 이 말은 Theisthai(세이스타이)에서 온 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all-seeing One)이라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全知)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면 시각장애를 갖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도 맹인 우상은 만들지 않는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의 눈도 속이기 쉽지 않는데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완전히 겹과 속을, 행동과 마음을 계속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기술과 재능을 보고 해석하려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조성되기 전, 그 마음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읽는 분은 하나님 외엔 아무도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알고 계신다. 약점이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는 다르다. 누가 열쇠 구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 하고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알려저서는 안 될 비밀도, 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니체는 살신(殺神)을 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미쳐 죽었다. 1984년 G.Orwell의 미래 세계를 내다 본 Big Brother의 진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할 것 같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는다.

사람의 오해와 모함으로 울분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높은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익히 아셨나이다.” 한 시인처럼 여차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두려워 말고, 그 앞에 감추인 죄를 회개하고, 그만 의지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질 것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이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을 목상하며 특별히 예배에 더욱 힘쓰고, 말씀과 기도와 생활 속의 실천으로 주님을 더욱 본받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아래 기도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공동기도문 : <http://www.seoulchurch.or.kr/upload/Lent.jpg>

정부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교회 출입 시 QR체크는 하지 않고, 발열 체크만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한 후 앉으시고, 앞좌석 분과 간격이 가깝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화 시에는 상호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313\\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313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b>이 종 윤</b>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b>손 달 익</b>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seoulchurch.or.kr/">http://seoulchurch.or.kr/</a>	

## “ 즐겁고 평온한 은혜 ”

### ■ 왕하 11:17-21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리스,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집트 등 당대 최강의 세력들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고 냉엄한 국제 정세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추수기가 되면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혼란하고 불안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열망은 언제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시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바국의 시작 : 하나님 없는 아합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고 기도로 국난을 극복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정치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라를 그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달라는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유다 왕국과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도 사망하자 아달라는 다윗의 직계 후손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략결혼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외세의 압력에 대응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 기리의 야합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둘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하나님을 배제한 동맹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주인이시며 그가 능력이시며 그가 역사의 목적이십니다.

#### 2. 희망의 시작 :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제사장 여호야다는 평생 성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문제도 그는 믿음 안에서 판단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 이어가야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증거는 요아스 왕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왕하 12:2) 나라가 혼돈과 무질서, 부도덕에 빠졌을 때 여호야다라는 한 노인 제사장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에 자기 몸을 바쳤고 마침내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또 한 번 신앙개혁을 이룬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젊은 왕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시대에 저질러진 폭정을 수습하고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보좌하며 기도했던 노련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평생 히스기야의 곁에 머물며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사람이 평온하고 즐거운 세상을 창조하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 3. 즐거워하고 평온한 은혜

본문의 핵심은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키니 국가와 민족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니 나라 안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위선적 종교인들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세상을 즐겁고 평온하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고 평온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63: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5(사순절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426(21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왕하 11:17-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즐겁고 평안한 은혜”...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46(39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46:5 ..... 인 도 자  
 찬 송 ..... 9(53) ..... 다 함 께  
 기 도 ..... 감동진 집사  
 찬 송 ..... 204(379) ..... 다 함 께  
 성 경 ..... 행 17:10-2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거룩한 분노” ..... 설 교 자  
 \* 찬 송 ..... 621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김익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해옥 권사 II부: 박정에 권사  
 성 경 ..... 행 17:22-3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전재홍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엔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왕하 11:20)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모임

- 권사회 헌신예배 준비 / 13일(주일) 오전 11시 502호
- 리브가 전도회 모임 / 13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에스더 월례회 / 16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802호

###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장례

- 故 김광철 집사(8교구 주익현 권사의 부군, 김범식, 김지은 성도의 부친) / 3월8일(화) 별세, 3월10일(목) 천국환송예배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50명	515명	2,165명	393명	1,931명



### 동일성을 상실한 위기

목전에 놓인 이권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동일성을 상실한 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간음하는 세대를 공격하며 유대인의 낡은 전통의 뿌리를 뽑는 일을 쉬지 않고 단행하였다.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 축첩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적 불의에 항거한 것은 분리주의자가 되어서가 아니고, 샤머니즘이나 유불선의 타종교에 대해 비판적이며 야합을 거부하는 것은 배타주의적 태도 때문이 아니다. 기독교가 그 본질을 상실하거나 대화나 연합이라는 구실로 혼합주의 또는 통일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은 기독교를 뿌리째 흔드는 사탄적 발상이므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기 위함이다.

순결을 상실한 교회, 자기 동일성을 깨뜨린 칠면조 같은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